

○ 박효자전(朴孝子傳)

오품 (五品)은 하늘의 성품이고 사람은 이를 따는 것이므로 능히 그 인륜을 다함을 구하는 것이다. 궁벽한 시골이 혹 덕화가 있는 고을보다 못하다는 것은 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궁벽한 땅에 덕화가 없으면 그만이나, 있으면 반드시 빼어나서 도리어 덕화가 있는 땅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인성을 따는 자는 억지 힘씀이 많고 천성을 순순히 하는 자는 진실됨이 많다. 천성이 아니면 참될 수 없고, 참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으니 느끼는 바가 열고 깊음은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것이다.

내 제주에서 감천의 효자 한 사람 얻어 박효자 전을 짓는다.

효자의 이름은 계곤이요, 본관은 밀양이다. 제주의 독포촌(옹포)에 살고 연리(하급관리)를 지냈다. 각별히 윗사람을 받들고 부모를 섬기기에 능히 힘을 다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드렸고, 낮에는 관청에서 일을 보다 밤에는 빨리 돌아와 부모님을 잘 모시니 사람들은 모두 효자라 일컬었다.

일찍이 공사로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구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서 겨우 사서도에 표박하였다. 이 섬은 주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인데, 같이 탔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머리를 맞대어 울었다. 그러나 계곤은 배의 널조각을 취하여 부친에게 이별하는 글을 쓰고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독개(옹포)에 표도하니 그의 부친이 이를 주워 관가에 급히 아뢰었다. 그러므로 관가에서는 경선(輕船)을 보내어 싣고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도 이로 인해 살았고 사람들은 다 이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관림하고 반드시 삼년간을 정성하기를 하루와 같이 슬퍼하였다.

경자(1720년)년에 숙종이 돌아가시자 계곤은 북쪽을 향하여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도민을 모집하여 능역(陵役)에 나가니 인현왕후의 언문전교를 받들기에 이르렀다. 돌아온 뒤에 삭망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배례하였다.

향교가 화재를 만나자 그는 쌀과 소를 내놓아 역사를 도우며 말하기를 “성묘에 일이 있으니 가히 미비하다고 하여 스스로 외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아들 치성(致盛)이 무과에 등제하니 글로 훈계하기를 “먼저 효제하고 주색을 삼가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다정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을 삼가며 남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되 보수를 바라지 말고, 그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면, 가난함을 속이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치성은 가르침을 잘 지켰고 벼슬은 만호가 되었어도 역시 효도하고 삼감으로써 이름이 있었다.

딸이 있었는데 일찍이 과부가 됐으나 수절하였다. 계집종 ‘고소락’이라는 자도 종신토록 시집을 아니가고 말하기를 “주인이 열행하는데, 비가 감히 남자와 같이 할 수가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정조 18년 갑인 년에 어사가 아뢰니 그 문을 효열충이라고 정려하도록 명하였다. 손자 중환에게는 특별히 부장을 제수하였고, 그 후예는 본주 유림으로 되었다. 외손 홍귀석이 마침 향교의 직원이 되었는데, 나에게 입전을 청하였다.

외사씨에 가로되 박군의 효가 기록할 만한 것은 오직 한배의 널조각에 대한 일뿐이다. 바다를 건너 능역에 참여한 일은 혹 임금의 은혜를 구한 것이다. 국상을 당하여 요 임금 때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곡을 한 일 같은 것은 어찌 적층을 다한 것이겠는가.

그러나 하늘과 사람의 참됨과 거짓사이에서 사람을 논한다면, 심정을 가림이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효자가 널판을 잡고, 글을 쓴 것은 이미 요행스럽게 살아날 수 있을 희망이 끊어지자 오직 아버지를 뵈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큰 한이 되었으니 가히 그 지성이 하늘에 통하고 바다에 철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널조각이 잠깐 사이에 어찌 꼭 그의 집 문 앞에 흘러가서 닿겠는가.

계갑 (정조 17~18년)에 비참한 흉년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육지의 비축

미로써 진흙하게 하였으니 주구의 섬에 또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겠는가
박군의 일은 임금을 섬기는데 있어서나 아버이를 섬기는데 있어서나 하나
도 거짓된 정성의 느낀 바가 용납됨이 없었으며 삼강이 이에 모여 있으니
손자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를 알았으며, 종이 주인을 알고 주인은 그
받은 바의 처지를 알았던 것이다.

박군은 그 진실로 하늘이 내린 효자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임인(1842)년 정월 상순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 짓다